

## 201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국어 B형 정답

|    |   |    |   |    |   |    |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 31 | ㉡ | 32 | ㉢ | 33 | ㉣ | 34 | ㉤ | 35 | ㉠ |
| 36 | ㉡ | 37 | ㉢ | 38 | ㉣ | 39 | ㉤ | 40 | ㉠ |
| 41 | ㉣ | 42 | ㉤ | 43 | ㉠ | 44 | ㉡ | 45 | ㉢ |

## 해설

## 1. [출제의도] 토의 절차에 따른 참여자의 담화 내용을 파악한다.

문제 확인 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도서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많아 토의를 하게 되었다고 토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② 사회자가 첫 번째 발언자를 정해 주고 순서대로 발언하도록 하였다. ③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④ 문제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정해 주었다.

## 3.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평가한다.

토의 과정에서 아직 결정된 대안이 없으므로, 이것을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뢰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쪽의 일방적인 회색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도서관 장서 확충’은 협소한 도서관 공간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있어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⑤ 도서관 개방이 대학 지원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4. [출제의도] 담화 내용을 통해 화법의 성격을 이해한다.

담화 참여자인 정우와 현지 사이의 지위 차이는 [E]에서 부각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호 작용이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우는 현지보다 선배이지만, 공식 담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점심 식사를 막 마친 시간이라는 점이 정우의 인사말 내용 생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③ 정우와 현지는 시 공간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기’, ‘저’ 등의 표현만으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④ 정우와 현지는 상호 교섭하며 ‘최연기 씨’와 관련된 발화의 내용을 즉흥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원활한 의사소통의 전략을 이해한다.

[가]에서 정우는 연극반에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안내문을 쓴다.

두 학생은 ‘중학교 학급 동창회 안내문’을 쓰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말한다. 그중 일부의 조건으로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동창회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이 제시된다. 정답지에는 식당에 먼저 가려고 내달리던 추억과 하나도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옥구슬 같은 목소리’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7. [출제의도] 건의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적절히 분석한다.

<보기 1>에서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 쓰기 과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기 2>에 제시된 자료들을 이러한 건의문 쓰기에 맞게 적절히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지에서는, (가)에서 언급된 기존의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나)의 (2)에 제시된 두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검토해 보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건의문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보기 1>과 <보기 2>를 고려하여 건의문을 쓰기 위한 전략과 내용 구성 방향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가 건의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구성 방향의 두 번째에서는 앞에서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으므로, 그러한 문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적절히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2>에 제시된 (가) 자료를 보면, 현재 ③과 같이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기보다는 기존의 교통안전 시설의 효과가 떨어지는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을 파악한다.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서 글쓰이는 기준에 쓴 내용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생성한다는 내용의 ②를 글쓰이가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10. [출제의도] 초고의 표현을 적절하게 고친다.

‘우연히’는 ‘아무런 노력 없이’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고쳐야 하며, 여기에는 ‘저절로’가 적절하다. ‘헛되이’는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이’의 뜻이므로, 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한다.

탐구 단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ㄴ’이 ‘ㄷ’ 앞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다’에서 ‘ㄴ’은 어간 ‘신-’의 받침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난다’에서 ‘ㄴ’은 어간 ‘날-’의 받침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과 ㉡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13. [출제의도]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사례를 교정한다.

㉢은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인지, ‘그의 동생’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을 ‘동생’이라고 볼 수 없고,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라고 볼 수 없다.

## 14. [출제의도] 담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담화의 기능으로 정보 제공, 호소, 사교, 선언 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담화가 갖는 기능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도 기사문, 뉴스의 일반적인 기능은 정보 제공이지만 경우에 따라 호소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보기>는 사랑의 온도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인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을 호소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확장을 이해한다.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다.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보다’가 ‘관점’을, ‘듣다’가 ‘수용’이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불의 감촉을 느끼는 것과 통증을 느끼는 것은 모두 추상화된 확장 의미가 아니라 기본 의미이다.

## 16. [출제의도] 한글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체자에 대해 획을 더한 뜻이 없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어금닛소리의 기본자 ‘ㄱ’은 같은 조음 위치의 가획자 ‘ㅋ’과 형태상 유사하다.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의 기본자와 가획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기본자와 가획자가 형태상 유사하게 되어 있다. ② ‘ㄱ’과 ‘ㅋ’을 비교해 보면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 ‘·, ㅡ, ㅣ’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기본자의 ‘·’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역시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훈민정음에서는 종성을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음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여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17~19] (사회)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 결정 원칙’

이 글은 공정성의 의미를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에서는 아담스가 주장한 공정성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즉, 공정성이란 자신의 산출이 클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타인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같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5문단에 따르면, 배분 공정성과 관련하여 배분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ㄱ 은행이 ㄴ 은행과 달리,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ㄱ 은행이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본 ④가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절차 공정성이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배분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차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그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3] (과학) 김수진, ‘광물과학’  
이 글은 광물 내부의 원자 배열 양상이 가진 규칙성으로 인해 광물의 결정은 고유한 결정형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더라도 그 면각은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광물 결정형에 관한 설명은 1문단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종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면각 일정의 법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가 외부로 반영된 것이 결정면이므로, 이에 따라 결정의 면각이 일정하다는 것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결정면의 성장 속도에 따라 결정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과 5문단의 설명을 통해 같은 광물의 결정이더라도 물질의 공급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3문단의 설명을 통해 스테노가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한 이유가 결정 내부의 규칙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측을 입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스테노가 발견한 면각 일정의 법칙은 다른 모양의 수정 결정들이 지니는 공통점일 뿐 그것을 통해 결정 내부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결정 모양은 원래 정육각기둥의 수평 단면 모양인 정육각형 모양의 결정이 물질의 공급을 받아 성장한 결과라고 하였다. 4문단의 설명을 통해 이해해 본다면, <보기>의 성장한 결정 모양에서 a면이 b면보다 상대적으로 좁으므로 a면은 b면보다 물질의 공급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금까지와 같이 b면보다 a면으로 물질이 더 공급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③ 처음부터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초기 결정 모양인 정육각형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④ 면각 일정의 법칙으로 인해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그 면각은 항상 같을 것이다. ⑤ 결정 모양이 변하더라도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 글에 사용된 ‘초석’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어떤 사물의 기초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단어는 ‘초석’과 의미가 같은 ‘주춧돌’이다.

[24~26] (인문) 황경식, ‘도덕 행위의 동기화와 수양론의 문제’  
이 글은 윤리학의 정당화 과제와 동기화 과제에 주목

하고 시대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여 왔던 경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윤리학이 이 둘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글쓴이는 1문단에서 윤리학의 정당화 과제와 동기화 과제를 소개하면서, 시대에 따라 이 과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대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나누어 윤리학이 두 과제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쳤던 양상을 설명하였다. 5문단에서 글쓴이는 두 과제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는 임진왜란 이후 윤리 의식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조선의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고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광해군의 의도에서 윤리학의 과제 중 동기화의 과제가 강조되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한다.  
㉠의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은 근대 이후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개인들 간의 유대가 약화된 상황과 연결된다. 이는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따른 윤리 체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이후의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 체제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28] (예술) 팀 말로 외 지음, ‘세기를 빛낸 위대한 화가들’  
이 글은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라는 13세기 말 이탈리아 화가의 회화에 대한 글이다. 이 화가는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회화를 시도하여 근대적인 회화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 조토의 회화가 지닌 사실적 경향을 사실에 기반한 관찰과 원근법, 중첩법, 그리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인물의 묘사에서 찾아보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1문단에서 비잔틴 회화는 작위적이고 관습화된 회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문단 끝 문장에서 조토의 생생하고 인간적인 회화가 르네상스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잔틴 회화와 르네상스의 회화는 상반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잔틴 회화에서 원근법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조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조토 회화의 특징이다. 이는 중세 종교화와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9~30] (독서) (가)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 (나) 이이, ‘독서(讀書)’  
(가)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글쓴이는 독서할 때 반복해서 생각해야 하며 그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 이이, ‘독서(讀書)’  
이 글에서는 독서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옛 선인의 독서 목적을 파악해 독서 문화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록하면 이치에 두루 통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

고 있다. 이로부터 (가)와 (나)의 글쓴이 모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옛 선인의 독서 전략과 태도를 이해한다.  
(가)의 글쓴이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에 나타나 있어도,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책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31~33] (회곡)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꿈이다 옷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둘째, 막내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고, 십 년 후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정승이 된 만형은 어머니의 결혼모습과 똑같은 여인을, 승려가 된 둘째는 어머니의 모성적 이상(理想)으로 불상(佛像)을, 광대가 된 막내는 어머니의 심성을 자신의 몸속에서 발견하여 찾아온다. 이를 통해 모성의 희생적 모습과 더불어 인생의 대표적 가치로 표상되는 정치, 종교, 예술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 작품이다.

31. [출제의도] 극의 전개 내용을 이해한다.  
본문 내용은 행방불명이 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세 자식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다.  
[오답풀이] ① 노파가 모아준 노잣돈을 ‘세 자식들’이 서로 덜어주는 장면에서 이들의 우애가 돈독함이 드러난다. ② 만형은 처음에는 가족 걱정엔, 둘째는 어머니의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길 떠나길 주저하였다. ③ 막내는 어머니를 찾는 기간으로 ‘십 년 기약’을 제안했다.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각 서울, 바다, 산으로 어머니를 찾아나선다. ⑤ 만형은 어머니가 도망한 것으로, 둘째는 죽은 것으로, 셋째는 생사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무대의 특성을 통해 극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연극은 설화적 이야기에 현재 상황이 개입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배우들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넘나들며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만누나는 자신도 오빠들과 헤어졌던 경험을, 만형은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연극 속 과거에서 현실에서의 자기의 이야기로 화제를 연결 짓고 있다. ② 배우들이 종이웃을 입으면 설화적인 인물을, 종이웃을 벗으면 배우 자신으로 돌아와서 현재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때 배우는 허구 세계를 빠져나와 배우로서 관객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일 뿐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33. [출제의도] 대사를 통해 회곡의 주제를 파악한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과거의 욕망이나 가치)’를 잃고 새롭게 찾아 나서는 욕망이나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를 욕망의 무상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이상일 수도, 예술일 수도 있’다에서 어머니가 인간 욕망의 비유적 표현임이 드러난다. ② ㉡에서 ‘세 갈래 길’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므로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서로 다름을 보여 준다. ③ ㉢에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으며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라 하고 있다. 각자의 욕망

을 위해, 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어머니를 찾아나서는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한다. ④ 세 자식들이 택한 길이 서로 다른 것은 각자의 인생의 길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36] 〈고전소설〉 작자미상, ‘이춘풍전’**

방탕하고 무능하며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득 찬 춘풍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현명한 아내와의 갈등을 통해 조선 후기 가부장적 가치관의 변모를 해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34. [출제의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다.**

㉠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평양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춘풍이 ㉡에서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맞지만, ㉢에서 춘풍의 아내가 다시 재산을 모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로 인해 가세가 기운 것으로 볼 수 없다.

**35.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한다.**

<보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장들이 생기면서, 여성이 집안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춘풍은 수기에서 집안의 중대사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안의 경제권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춘풍의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춘풍의 아내가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아 가산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 있다. 침재, 길쌈 등 춘풍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4~5년 동안 이러한 일을 통해 가세가 풍족해졌다는 말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39] 〈현대시〉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이별과 만남의 숙명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 오세영, ‘모순의 그릇’**

일상적 사물인 그릇의 속성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의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37.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1연~4연까지는 ‘~위하여서는 ~가 있어야 하네’를 반복하며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는 1연과 5연에서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공간적 의미를 통해 시를 감상한다.**

[C]에는 이별이 사랑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39. [출제의도] 유추를 통해 시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시의 기본적인 발상은 유추에 있다. 그릇의 ‘깨어짐’과 인간의 ‘죽음’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릇의 순환 과정을 통해 ‘모순’으로서의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 2연에서 ‘생애의 영광’에 해당하는 순간에 그릇이 깨어진다고 한 것이 ‘인간은 죽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생애의 영광’을 인간이 추구할 가치로 파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40~43] 〈현대소설〉 염상섭, ‘두 파산’**

‘두 파산’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반민특

위가 활약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해방 직후 남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정례 모친과, 그녀의 친구로서 일제 때 친일 행위를 한 남편을 둔 김옥임의 상반된 삶의 양식을 대비시킴으로써 두 가지 현실 적응의 방식을 보여 준다.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옥임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당하고 난 뒤의 정례 모친의 내면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지문의 뒷부분에서는 정례 모친에게 비난을 퍼부은 옥임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가며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과 관련해 작품을 이해한다.**

㉠에서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 앞에서 옥임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당한다. 정례 모친은 옥임을 향해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등의 말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생각해 그러한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례 모친의 속내는 구경꾼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해 향한 ㉢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정례 모친의 심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 미쳐나려나?’는 정례 모친이 친구 옥임의 지나친 행동을 ‘달래며 나무라’는 말이므로, 이를 ‘정신적 파산’으로 해석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욕을 본 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을 한다’는 의미이다. 옥임은 돈을 갚지 않는 정례 모친을 혼내려고 했지만 얼떨결에 젊은 서방과 관련해 정례 모친을 비난한다. 이것은 정례 모친이 돈을 갚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에 대한 짜증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옥임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애꿎은 정례 모친에게 공연한 화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44~45] 〈고전시가〉 안민영, ‘매화사’**

‘매화사’는 1840년에 작자가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 위에 놓인 매화에 붙여 노래한 8수의 연시조이다. 이는 작자의 많은 시조 작품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으로, 맑고 섬세한 매화의 형체와 향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4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시에서는 매화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제3수>에서는 눈이 내린 상황과 황혼의 달이 뜬 상황에서 매화가 피어나 서로 조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눈과 황혼의 달이 조응한 후에 화자와 매화 사이에 조응이 일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